

# 대학생이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따른 다문화수용성에 관한 연구: 공감능력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유 두 련 (대구가톨릭대)  
(dryou@cu.ac.kr)



## 국문요약

본 연구에서는 조사대상자의 지각된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다문화수용성에 대한 차이를 살펴보고, 대학생들이 지각하는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하여 공감능력의 매개효과를 파악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2018년 11월 26일부터 2주일간 대구·경북지역 대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386부를 최종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자료분석은 SPSS 프로그램을 통하여 신뢰도, 기술통계 분석, T검정, 일원분산분석 및 사후검정과 매개회귀분석 및 Sobel Test를 적용하였다. 대표적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구사회적 특성에 따른 지각된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대한 차이를 분석한 결과, 성별과 종교에서 유의하였다. 다문화수용성에 대한 차이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다양성과 보편성 변인에서 여학생의 경우에 점수가 더 높았으며, 월평균 소득에서는 관계성과 보편성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다문화 관련 정보원과의 차이분석에서는 인쇄매체와 멘토링에

\* 이 논문은 2016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6S1A5B8924268)

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관계성에서 ‘인터넷 매체와 접촉빈도’, ‘자원봉사’, ‘외국인 친구가 있다’ 등의 변인과 ‘해외여행경험이 있다’고 한 경우에는 유의하게 나타났다. 둘째, 관점수용과 공감적 각성의 매개효과 분석에서 모두 어머니의 온정수용 양육행동 변인만 다문화수용성의 문화개방성과 상호교류행동의지, 이중적 평가 변인에 대하여 부분매개효과가 있었다.

주제어: 다문화수용성, 어머니 양육행동, 공감능력, 매개효과

## I.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한국사회는 1990년 이후 글로벌화가 가속화되면서 인종적·민족적·문화적 다양성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이다. 최근 2018년 통계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전체인구의 약 4.4%가 국내 체류 외국인으로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결혼이민자의 경우에도 2002년 이후부터 매년 28% 이상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통계청,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통계월보 2018.09). 결혼이민자로 구성된 다문화가정에서 자녀출산에 따른 인구변화는 우리나라 총인구 구성에 큰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고령인구의 증가와 저출산 국가라는 현실에서 다문화가족이 우리사회에 기여하는 비중은 점차 더 증가하게 될 전망이다. 한국이 다민족·다문화 사회에 진입해 오면서 점차 청소년기로 접어드는 다문화 가정 자녀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우리 사회를 이끌어 갈 사회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가정, 학교, 사회에서 함께 관심을 가지고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다문화사회로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나라 국민들의 이주자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 및 배타적인 태도와 문화적 차이에 대한 이해부족은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박주희 외 2008; 장임숙 외 2011).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따돌림을 당하게 되는 원인은 주로 선주민 가정 자녀들이 가지게 되는 차별과 편견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설동훈 2005; 전정숙 외 2007, 권재환 외 2015).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이러한 부정적인 경험은 그들의 자신감 형성과 사회성 발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설은정 외 2012; 오성배 2007; 홍정미 2009). 이는 다문화사회에서 사회통합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사회발전을 저해하는 원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 그러므로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지닌 사회구성원들의 공존을 위해서는 주류사회 구성원들의 인식과 태도

및 가치관의 변화가 필요하며, 주류사회에서도 이주민을 받아들이는 문화적응이라는 상호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Berry 2005; 남희은 외 2014).

그 동안 다문화 사회와 관련된 연구는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적응실태 또는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고자 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왔다. 그러나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편견적 태도가 선주민의 가정 자녀들에게서 나타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다양한 사회구성원들이 조화롭게 살아가는 다문화사회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주류집단의 수용적 태도에 대한 연구가 절실히 필요하다(설은정 외 2012; 남희은 외 2014).

대학에서도 국제화의 영향으로 인해 활발해진 국제교류를 통하여 유학생, 연수생 등이 급증하고 있으며(통계청 2018), 이러한 변화된 환경 속에서 대학생들이 외국인 친구들과 통합을 이루는 것이 점점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국내 대학에서는 다문화인식이나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유학생을 유치하였으며, 영어교육에 대한 과도한 집착은 유학생의 인종과 언어에 따라 편견과 차별을 초래하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현재의 대학생들은 다문화수용성에 대한 교육을 받은 경험도 거의 없으며, 다문화 인식에 대한 관심을 거의 두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정미경 2008; 박혜숙 외 2010). 그러나 대학생들은 미래 사회구성원으로서 우리 사회의 발전을 도모해나가야 하며, 다양한 국가들과의 교류가 필요한 사회에서 살아가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대학생들의 다른 문화에 대한 수용성 수준을 파악하고, 다문화수용성 향상방안을 모색 것은 교육적 의미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다문화수용성이란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와 존중, 다른 문화권 사람들과의 공존(companionship)이라고 할 수 있다(박혜숙 외 2010; Gils & Sherman 1982). 다른 문화에 대한 존중과 문화권 사람들과의 공존가능성은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과 관련되는 인간 존중과 타인을 배려하는 인성과도 관련된다(박혜숙 외 2010).

자녀들에게 있어서 부모는 정서적·사회적 발달의 일차적인 영향을 미치며, 부모와의 관계를 통하여 자녀는 타인을 향한 긍정적인 감정을 확립하게 되며, 부모로부터 형성된 인식과 편견은 성인이 된 이후에도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연구결과를 살펴볼 수 있다(Nesdale 1999; 고아라 2005). 부모의 온정적이며 수용적인 양육태도는 자녀들로 하여금 이타성, 사회성, 타인을 배려하는 태도 등을 증진시키며(김학령 외 2011; 이민영 외 2011), 반면에 부모의 지배적인 양육태도는 자녀의 편견적 태도에 영향을 주는 연구결과도 찾아볼 수 있다(양계민 2009).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태도는 자녀의 타인에 대한 이해와 우호적인 행동 등 사회성 발달과 정적으로 유의한 결과뿐만 아니라 자녀의 공감능력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이순자 외 2004; 한용재 외 2015). 또한 타인의 정서를 이해하고 자신의 것처럼 느끼고, 이를 전달하려는 공감능력은 친사회적 행동의 중요한 동기가 되는 것이다(고영희 2011). 더 나아가 사회적 친밀감은 다문화 관계형성, 다문화 개방성, 다문화적 공감 등 전반적인 다문화수용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설은정 외 2012; 정석원 외 2012; 최지영 외 2015).

지금까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다문화수용성 관련연구는 주로 그들의 다문화 인식과 태도에 관한 연구가 대부분이며, 다문화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통계학적인 특성, 사회문화적, 경제적 환경요인 또는 개인적 요인으로서 다문화교육경험, 외국인접촉빈도, 부모양육태도 등이 있다(박혜숙 외 2010; 장임숙 외 2011; 정석원 외 2012; 홍유진 2014). 그러나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요인으로서 개인의 심리적 요인에 대한 연구는 거의 찾아보기가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목적은 대학생들이 지각하는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며, 두 변인 간에 있어서 공감능력의 매개효과를 파악해보고자 하는 것이다. 본 연구결과는 대학생들의 다문화수용성 향상방안을 모색하고 사회통합을 이루어나갈 수 있는 정책개발에 필요한 실천적 전략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II. 이론적 배경

### 1. 어머니의 양육행동

부모의 양육행동이란 부모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 일반적 또는 보편적으로 나타내는 태도 및 행동으로 정의하며, 이는 자녀의 사회화 과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알려져 오고 있다(Hart 외 1992). 부모의 양육행동에는 부모 자신의 성격뿐만 아니라 부모의 가치, 신념, 믿음, 행동의 목적과 평가 등이 반영되어 있으며, 가족구성, 가정 분위기, 그 사회의 문화적 배경 등과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양문현 1984). 어린 시절 부모의 양육행동으로 인하여 형성된 부모-자녀의 정서적인 관계는 이후의 발달에까지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Schaffer & Kipp 2007). 따라서 부모의 양육행동은 자녀의 전반적인 발달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부모의 양육행동은 학자들에 의해 여러 가지 차원으로 분류하고 있다. 양육행동이 여러 가지 요인들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 요인들과 자녀발달의 관련성 측면에서 살펴보는 것은 차원론적 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자녀양육의 환경, 분위기 등에 대한 분석은 유형론적 접근으로 볼 수 있다(박영애 1995). 본 연구는 양육행동과 자녀의 공감능력 및 다문화수용성에 대한 매개효과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므로 부모양육행동의 구성요인에 대하여 차원론적 측면에서 고찰하고자 한다.

심리학자들에 의해 부모의 양육행동에 대한 연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으며,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하여 Schaefer(1959)는 애정-적대, 자율-통제라는 개념모형을 제시하였다. 심리학자인 Becker(1964)는 부모양육행동 내용에 대하여 요인분석을 통하여 온정 대 적대, 감정개입 대 냉정한 초연함, 제한성 대 허용성 등의 3가지 요인으로 구분하였으며, Roe와 Siegelman(1963)도 애정 대 거부, 비요구적 태도 대 요구적 태도, 뚜렷한 관심표현 등 3가지 요인으로 분석하였다.

Salter와 Power(1987)는 부모의 양육행동을 3가지 차원으로 평가하는 척도를 개발하였다. 이 중에서 첫 번째 차원으로서 온정과 지원은 애정적 행동, 비제한적 태도, 지원, 도움 등을 포함하고, 두 번째 차원으로 훈육과 통제는 성숙요구, 통제, 요구, 훈육 등의 유형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세 번째 차원은 허용방임으로서 여기에는 일관성과 조직성, 가정조직의 구조화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다.

국내연구를 살펴보면, 어머니의 양육태도에 대하여 온정-냉정, 과보호-방임, 허용-제약, 안달-태평 등 4가지 차원으로 구분하였으며(차재호 외 1974),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유아발달과정을 살펴보고자 하는 연구에서 이원영(1983)은 애정적-중요적, 거부적-수용적, 외향적-내향적, 의존성 조장-독립성 조장, 통제적-자율적, 긍정적-거부적, 어머니의 의존성-어머니의 독립성 등 모두 일곱 개의 차원으로 분류하여 분석에 적용하였다. 박영애(1995)는 부모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자존감과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는 연구에서 온정-수용, 거부-제재, 허용-방임 등 세 요인을 추출하였으며, 김문정(2003)의 연구에서도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문제행동과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는 연구에서 온정-수용, 거부-제재, 허용-방임 등 세 요인으로 차원을 구분하였다. 유고은(2010)은 모의 양육행동과 자기개념 명확성의 관계에 관한 연구에서 양육행동을 돌봄(care)과 과보호(overprotection)의 2가지 차원으로 구성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모의 양육행동은 연구자에 따라 여러 가지 구성요인으로 구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모의 양육행동이란 어머니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자녀의 행위에 대하여 나타내는 어머니의 일반적인 태도와 행동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그리고 양육행동의 복잡성과 심리적인 측면을 측정함에 있어서 적절하게 구성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박영애(1995)의 척도에 따라 온정-수용, 거부-제재, 허용-방임의 세 가지 차원으로 구분하여 적용하고자 한다.

양육행동을 측정함에 있어서는 첫째, 부모가 스스로 인식하는 양육행동과 둘째, 자녀가 지각하는 양육행동이다. 전자의 경우에는 부모의 실제적 양육행동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또한 자녀의 성격적 특성에 따라 자녀가 부모의 양육행동을 어떻게 지각하는가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부모와 자녀관계의 질은 자녀가 양육행동을 어떻게 지각하는가에 의해 결정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므로(조한숙 2010),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이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통하여 다문화수용성을 설명하고자 한다.

## 2. 공감능력

공감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남의 감정, 의견, 주장 따위에 대하여 자기도 그렇다는 느낌. 또는 그렇게 느끼는 기분이라고 정의하고 있다(네이버 어학사전).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그 사람의 입장이나 감정 또는 기분에 동일시하거나 매우 비슷하게 생각하는 것이다(Eisenberg et al. 1998). 공감은 자신보다는 타인이 처한 상황에서 타인에 대한 이해와 일치된 감정이 포함되는 관계 성향이므로(Hoffman 1982) 심리학 등 인간관계를 다루는 연구 분야에서 오랜 관심분야로 다루어지고 있다. Rogers(1975)는 공감이란 인지적 관점에서 “내담자의 사적인 세계를 그것이 마치 상담자 자신의 세계인 것처럼 경험하는 능력”으로 정의하였다(지소라 2009; 고영희 2011). 이러한 공감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자기중심성을 극복하고 타인들의 상이한 관점에 대하여 수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고영희 2011). 한편, Freud(1949)는 우리의 자아가 다른 사람의 내면을 이해하고, 그들의 정신적 삶을 어떠한 경우에도 흡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공감이라 하였으며, 이는 공감의 정서적인 관점에서 정의하고자 하는 것이다(고영희 2011). 또한 공감은 내담자의 현재 감정에 대하여 그에 맞추어진 언어로 이해한 바를 소통하는 언어적 능력으로 정의하였으며, 이를 공감의 의사소통 기능으로 설명하고 있다(박성희 2004).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공감이란 타인의 내면세계에 대한 이해를 정확히 하고, 타인의 감정을 느끼면서 자신의 일처럼 경험한 후에, 그 이해한 내용을 말로 전달해 주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박혜원 2002; 정미선 외 2017). 공감에 관한 이러한 정의는 타인의 관점이나 역할을 수용하는 인지적 요소와 타인과 같은 정서를 경험하는 정서적 요소가 동시에 관련된 내적 과정이 언어나 행동으로 표현되는 것이므로 공감능력과 같은 의미라고 할 수 있다(지소라 2009). 사회적 존재로서 인간은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사회적 관계를 이루어가면서 행복한 삶을 영위하고자 하며, 이러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함에 있어서 타인의 관점이나 역할을 인지하고 그들의 정서를 이해하며 이를 전달하는 공감능력은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공감은 특히 다문화 사회에서 인간존중과 타인에 대한 배려하는 인성과도 관련이 있으며, 다문화사회를 살아감에 있어서 인종, 사고, 언어, 문화 등의 다른 관점에 대한 이해와 수용을 필요로 하는 성숙한 시민의식과도 관련이 있다(박혜숙 외 2010; 남희은 외 2014). 본 연구에서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다문화수용성 간에 공감능력의 매개효과를 살펴봄에 있어서 공감능력의 인지적 요소와 정서적 요소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공감능력의 인지적 요소는 타인의 마음을 이해하거나 유추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관점수용과 역할수용 능력이 포함되어 있다(지소라 2009). 이는 타인의 역할과 대인적 조망을 취할 수 있는 능력으로서 ‘관점수용’ 이라고 한다.

공감능력의 정서적 요소란 공감에 의한 정서반응이라고 할 수 있다. 타인이 처한 상황에 보다 부합하는 감정 상태로 마치 상대의 입장에서 보여주는 정서적 반응을 하는 것 (Eisenberg et al. 1987), 또는 다른 사람이 처한 상황이나 조건으로 인해 공감하는 사람에게 촉발되는 정서적 각성 상태(박성희 2004)라고 한다. 정서적 공감을 나타내는 주요 개념으로 는 타인의 주된 정서와 비슷하게 전염되어 느끼게 되는 상태를 의미하는 정서감염을 비롯하여 공유된 정서, 공감적 관심 등이 있다(우영혜 2007). 이들 의미에 있어서 공통적인 것은 공감자의 내면에 각성된 정서를 지칭하는 것이며, 따라서 공감의 정서적 요소를 공감적 각성이라고 할 수 있다(지소라 2009).

이상의 선행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의 공감능력에 있어서 인지적 공감이란 다른 사람의 입장 또는 관점을 취해보는 경향, 즉 관점수용으로 정의하고자 하며, 정서적 공감이란 다른 사람의 정서에 대하여 공감적 정서가 각성되는 경향, 즉 공감적 각성이라고 정의하고자 한다.

### 3. 다문화수용성

다문화수용성의 개념에 대하여 아직까지는 연구자들 간의 개념정의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다문화수용성 외에 다문화 인식, 문화 간 감수성, 문화 간 유능성, 문화 간 민감성, 다문화 유능성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홍유진 2014). 다문화수용성에 관한 논의는 1990년대 중반부터 외국인근로자들이 증가하면서 시작되었으며, 2000년 이후에 결혼이민자가 급증하고 국내 거주 외국인의 수가 100만 명을 초과하게 되면서 활발하게 진행된다고 할 수 있다. Chen(1997)의 연구에서는 다문화수용성이란 문화간 감수성 측면에서 설명하고 있다. 즉, 다른 문화들을 제대로 이해하며 다문화 간 소통에 적합하게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하였다. 그 이후에는 다양한 차원을 포함하는 문화 간 의사소통 능력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하위영역으로는 인지적 측면에서 문화 간 인식, 정서적 측면에서 문화 간 민감성, 행동적 측면에서 문화 간 기민성 등의 세 가지 요소를 제시하였다(홍유진 2014). 국내연구자에 의한 개념을 살펴보면, 다문화수용성이란 다문화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적응능력으로 정의하고 있으며(김미진 2010), 하위 영역으로는 다문화적 인식, 다문화적 개방성, 다문화적 공감, 관계형성에서의 유능성 등의 네 가지로 설명하고 있다. 한국형 다문화수용성 척도개발을 시도한 연구(민무숙 외 2010)에서는 다문화수용성이란 다른 문화에 대하여 편견을 갖지 않고 자신의 문화와 동등하게 인정하며, 다양한 인종들과의 공존을 위하여 협력적인 관계를 위하여 노력하는

사회적 가치를 지지하는 태도라고 정의하고 있다. 안상수 외(2012)의 연구에서는 민무숙 등(2010)의 연구에서 제시한 다양성과 관계성의 개념을 기본으로 하고, 더 나아가 다문화 수용성의 개념에는 인종이나 민족, 경제수준 간에 차등을 두지 않고 세계시민의 한 사람이라는 보편적 가치에 입각하여 이를 실천하고자 하는 총체적 의미를 포함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다문화수용성의 주요내용을 다문화에 대한 고정관념이나 편견 없이 한국인으로 받아들이는 열린 태도의 관점에서 개방성에 대한 가치인식을 강조하는 정의도 찾아볼 수 있다(김미진 2010). 윤인진 등(2011)의 연구에서는 다문화수용성에 대하여 우리사회가 다문화사회로 나아감에 있어서 우리와 다른 문화를 존중하고 인정하려는 다문화지향적 태도와 다문화 구성원들을 공존의 대상으로 받아들이고자 하는 수용의 정도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강모 등(2015)은 다문화수용성이란 사회문화적 다양성을 긍정적이고 가치 있게 인식하고 다양한 인종, 문화, 언어의 공존 및 수용을 지지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안상수 외(2012) 연구를 참고로 하여 대학생들의 다문화수용성이란 다양성, 관계성, 보편성 등의 차원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즉, 대학생들이 다문화사회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세계시민으로서 구성원이라는 공동체적 사고에 입각하여(보편성) 타문화에 대하여 편견 없이 동등하게 인정하고 수용하며(다양성), 조화로운 다문화사회(관계성)를 이룩하기 위한 태도와 행동경향이라고 정의하고자 한다. 먼저, 다양성 차원에 대하여 살펴보면 문화개방성, 국민정체성, 고정관념 및 차별 등 3개의 하위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문화개방성이란 다양한 문화적 배경의 이주민 유입/정주 인정하는 것이며, 국민정체성이란 국민 됨의 자격 기준에 대한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고정관념·차별이란 외국인 및 이주민에 대한 고정관념과 차별의식과 태도를 가지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관계성 차원은 일방적 동화기대, 거부·회피 정서, 상호교류행동의지 등 3개 하위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일방적 동화기대란 이주민들이 우리문화에 대하여 동화 및 순응하도록 기대하는 것이며, 거부·회피 정서란 이주민과의 접촉상황에서 가까이 하기 싫다거나 피하고 싶다는 등의 비합리적이고 부정적인 정서 상태를 의미한다. 상호교류행동의지란 이주민과 가까이 하며 친교관계를 맺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보편성 차원은 이중적 평가, 세계시민행동의지 등의 2개 하위요소로 구성되었다. 이중적 평가란 경제 개발 수준, 문화적 배경 등에 등급을 두고 개발도상국 출신과 선진국 출신 사람들에게 편견을 가지는 것을 의미하며, 세계시민행동의지란 인류애와 같은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며 이에 대한 실천의지 여부에 대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다문화수용성이 높다는 것은 다문화사회로의 변화를 인식하고, 이를 수용적으로 받아들이면서 능동적으로 대처해나가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제화 되어가고 있는 대학에서 구성원들로 하여금 다문화수용성의 수준을 알아보는 것은 미래의 바람직한

다문화사회 준비를 위하여 매우 의미가 있을 것이다.

### Ⅲ. 연구방법

#### 1.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예비조사는 10월 29일부터 31일까지 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각 문항을 수정보완 한 후에, 본 조사는 2018년 11월 26일부터 12월 7일까지 실시하였다. 대구·경북지역에 소재하는 대학생 400명을 대상으로 편의표집방법으로 설문조사를 하였으며, 불성실하게 응답한 자료를 제외하고 386부를 최종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의 통계분석을 위해 SPSS 프로그램을 이용하였고,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Cronbach's  $\alpha$  계수를 구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으며, 주요변수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대한 차이와 다문화수용성에 대한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 및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후 사후검정으로 등분산 가정여부에 따라 Seffee와 Dunnett T<sub>2</sub>를 적용하였다.

대학생이 지각하는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공감능력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Baron과 Kenny(1986)의 3단계 매개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매개효과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을 알아보기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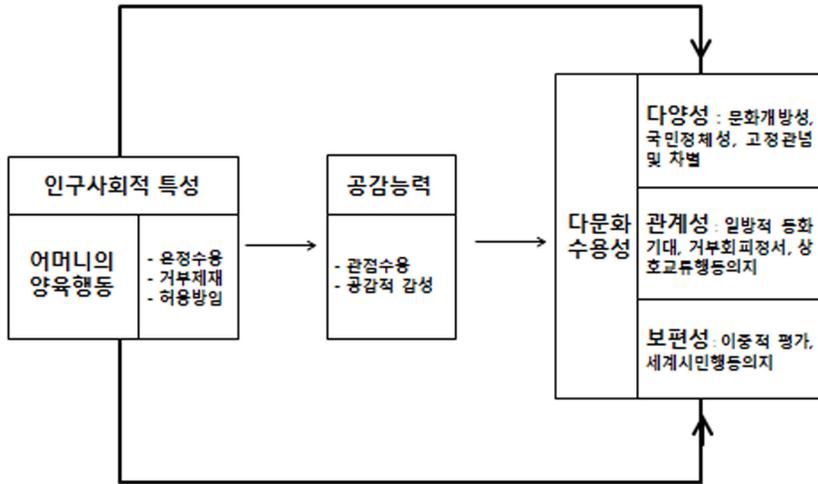
#### 2. 연구문제 및 연구모형

본 연구는 대학생들이 인지한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따라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며, 이를 위한 연구문제와 연구모형은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적 특성에 따라 지각된 어머니의 양육행동에는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적 특성에 따라 다문화수용성은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3. 지각된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영향력에서 공감능력의 매개효과는 어떠한가?



<그림 1> 연구모형

### 3. 주요개념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도구

본 연구의 설문지는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적 특성에 관한 문항과 어머니의 양육행동, 대학생의 다문화수용성과 공감능력을 알아보고자 하는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주요변수들의 측정은 모두 5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였다.

대학생이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측정하기 위하여 박영애(1995)와 김문정(2003)의 척도를 참고로 사용하였다. 양육행동은 온정수용, 거부제재, 허용방임 등의 3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하였으며, 각각 10문항씩 총 3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어머니의 양육행동 문항에 대한 내적 일관성을 확인하기 위해 신뢰도 분석을 실시한 결과 Cronbach's  $\alpha$ 는 .899로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대학생의 공감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박선희(1997), 지소라(2009)가 번안하고 수정·보완한 공감능력 검사 도구를 활용하였다. 이는 공감의 인지적 요소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인 Davis(1980)의 IRI(관점수용 검사)와 정서적 요소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인 Bryant(1982)의 공감적 각성검사 도구를 참고로 하여 개발한 것이다. 공감능력을 알아보기 위한 하위요인으로는 관점수용 5문항과 공감적 각성 15문항으로 각각 구성하였다. 응답결과에서 점수가 높을수록 공감능력이 높은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본 문항의 신뢰도 분석을 실시한 결과 Cronbach's  $\alpha$ 는 .827로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대학생의 다문화수용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안상수 외(2012), 홍유진(2014)의 척도와 한국인의 다문화수용성을 측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개발한 국민다문

화수용성 진단도구(KMCI)를 참고로 하여 구성하였다. 본 척도는 한국인의 다문화수용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다양성, 관계성, 보편성 등 3개의 차원과 총 8개의 하위요소(총 35개 문항)로 구성되어 있다. 본 문항에 대한 신뢰도 분석을 실시한 결과 크롬바흐 알파(Cronbach's  $\alpha$ )는 .92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다음의 <표 1>과 같다.

<표 1> 조사도구의 구성 및 신뢰도

변인명		측정내용	문항수	신뢰도		
어머니의 양육태도	온정수용	자녀에 대한 애정표현, 수용, 존중, 긍정적 평가, 관심, 대화, 신뢰, 지도의 합리성, 자율성 및 독립성 장려 등	10	.890	.899	
	거부제재	자녀에 대한 불만, 부정적 평가, 무시와 비하, 비난, 불신, 침해적 개입 등	10	.780		
	허용방임	자녀의 요구를 과하게 수용해 주는 것, 무관심형 방임, 굴복형 허용, 무책임 등	10	.788		
공감 능력	관점수용	일상생활에서 자신으로부터 벗어나서 다른 사람의 입장 또는 관점을 취해보는 경향	5	.768	.827	
	공감적 각성	다른 사람의 정서에 의한 촉발되는 정서적 각성 상태	15	.737		
다문화 수용성	다양성	문화 개방성	다양한 문화적 배경의 이주민 유입/정주 인정	4	.793	.924
		국민 정체성	국민 됨의 자격 기준에 대한 다양성을 인정	4	.860	
		고정관념 차별	이주민에 대한 고정관념과 차별의식과 태도	7	.892	
	관계성	일방적 동화 기대	우리문화에 대하여 동화 및 순응하도록 기대	4	.753	
		거부 회피	이주민과 가까이 하기 싫다거나 피하고 싶다는 등의 부정적인 정서 상태	3	.887	
		상호교류 행동의지	이주민과 가까이 하며 친교관계를 맺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경우	4	.831	
	보편성	이중적 평가	경제 개발 수준, 문화적 배경 등에 등급을 두고 사람들에게 편견을 가지는 것	4	.849	
		세계시민 행동의지	인류애와 같은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며 이에 대한 실천의지가 있는 경우	5	.736	

#### 4.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성별의 경우 여학생이 178명(45.56%)으로 남학생에 비해 약간 적었다. 어머니의 연령에서는 50대 238명(60.6%)으로 가장 많았으며, 어머니의 학력에서 대학졸업(전문대 포함) 이상이 219명(56.4%)으로 과반수이상을 차지하였고, 본인의 종교에서는 종교가 없다고 한 응답자가 245명(63.0%)으로 가장 많았다. 월평균소득에서는 400만원~500만원 미만이라고 한 응답자가 79명(21.0%)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른 소득구간에서는 약 15-20%정도로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였다.

대학 재학 중에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외국인, 결혼이주민, 다문화가정 자녀, 외국인근로자 등의 내용에 관하여 접해본 경험이 있는가에 관한 다문화교육 정보원과 접촉빈도에 관한 일반적 특성에 관한 것이다. 모든 항목에서 없거나 1-3회 정도의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70~75% 정도로 나타났으며, 이 중에서 인터넷 또는 SNS를 통한 경험의 경우에 다른 항목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많이 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학교수업 또는 특강을 통해서도 응답자의 44.5%가 1~3회 정도 접해본 것으로 응답하였다.

다문화가정 자녀 등과의 접촉한 경험정도에 관한 문항에서 살펴보면, 외국이주민 또는 다문화가정 자녀들을 위한 자원봉사와 멘토링 경험이 '그렇지 않다'거나 또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부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이 전체 응답자의 3/4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한편으로 외국인 친구가 있는가에 대하여서는 '매우 그렇다' 또는 '그렇다' 등의 긍정적인 응답비율이 약 20%정도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의 해외여행경험이 있는가에 대하여서는 다른 항목에 비하여 '매우 그렇다' 또는 '그렇다' 등의 긍정적인 응답비율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표 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386)

변수	구분	빈도(%)	변수	구분	빈도(%)
성별	남	210(54.5)	어머니 연령	40대	143(36.4)
	여	178(45.5)		50대	238(60.6)
종교	종교 없음	245(63.0)		60대	12(3.1)
	불교	43(11.1)	월평균 소득	200만원 미만	112(3.2)
	개신교	64(16.5)		200만원~300만원 미만	27(7.2)
	천주교	30(7.7)		300만원~400만원 미만	61(16.2)
	기타	7(1.8)		400만원~500만원 미만	79(21.0)
		500만원~600만원 미만		74(19.6)	
어머니 학력	중졸이하	9(2.3)	600만원~700만원 미만	49(13.0)	
	고졸	160(41.2)	700만 원 이상	75(19.9)	
	대졸이상	219(56.4)			

다문화교육 관련 정보원 및 접촉빈도

인쇄매체(책/ 신문/잡지)	없다	146(37.8)	영화 등	없다	157(41.2)
	1~3회	152(39.4)		1~3회	128(33.6)
	4~6회	59(15.3)		4~6회	54(14.2)
	7~9회	14(3.6)		7~9회	28(7.3)
	10회 이상	15(3.9)		10회 이상	14(3.7)
TV/라디오	없다	105(27.1)	공공기관/ 사회단체 등에서 실시하는 교육경험	없다	154(39.8)
	1~3회	160(41.3)		1~3회	125(32.3)
	4~6회	81(20.9)		4~6회	77(19.9)
	7~9회	14(3.6)		7~9회	18(4.7)
	10회 이상	27(7.0)		10회 이상	13(3.4)
인터넷 매체(인터넷, SNS 등)	없다	86(22.3)	학교수업 또는 특강경험	없다	92(23.7)
	1~3회	147(38.1)		1~3회	173(44.5)
	4~6회	72(18.7)		4~6회	82(21.1)
	7~9회	41(10.6)		7~9회	26(6.7)
	10회 이상	40(10.4)		10회 이상	16(4.1)

경험정도

자원봉사 (다문화가정 자녀 등)	전혀 그렇지 않다	170(43.5)	외국인 친구가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	148(37.9)
	그렇지 않다	75(19.2)		그렇지 않다	75(19.2)
	보통이다	95(24.3)		보통이다	90(23.0)
	그렇다	34(8.7)		그렇다	53(13.6)
	매우 그렇다	17(4.3)		매우 그렇다	25(6.4)
멘토링 (다문화가정 자녀 등)	전혀 그렇지 않다	199(50.9)	해외여행 경험이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	53(13.6)
	그렇지 않다	81(20.7)		그렇지 않다	35(9.0)
	보통이다	67(17.1)		보통이다	103(26.3)
	그렇다	30(7.7)		그렇다	98(25.1)
	매우 그렇다	14(3.6)		매우 그렇다	102(26.1)

## IV. 분석결과

### 1. 인구사회적 특성에 따른 지각된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대한 차이분석

대학생이 지각한 어머니 양육행동의 하위요소 각각에 대한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전반적으로 성별, 종교, 어머니의 학력, 가계의 월평균 소득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먼저, 온정수용 하위요인에 관한 결과를 살펴보면 성별에서 남학생(M=3.86)이 여학생(M=3.73)에 비해 평균점수가 높게 나타났으며, 어머니의 학력에서는 대졸이상 집단(전문대 포함)에서 가장 높은 평균점수(M=3.89)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p<.01). 그러나 사후검정에서 유의성은 없었다. 월평균소득에 따라서는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대학생이 지각한 온정·수용의 양육행동에 대한 점수도 높았으며, 사후검정에서 유의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부제재 요인의 경우, 종교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 사후검정에서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소득의 경우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사후검정에서 700만 원 이상(M=2.94) 집단에서 500만원~600만원미만 보다 점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1).

허용방임 요인의 경우, 종교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 사후검정에서는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소득 변인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p<.01), 사후검정 결과에서도 700만 원 이상(M=1.97) 집단에서 500만원~600만원미만 보다 점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인구사회적 특성에 따른 지각된 어머니 양육행동에 대한 차이분석

변인	구분	N	양육행동		
			온정수용	거부제재	허용방임
			M±S.D	M±S.D	M±S.D
성별	남학생	213	3.86±0.71	2.3±0.87	1.8±0.88
	여학생	178	3.73±0.65	2.23±0.77	1.77±0.78
	t값		1.988*	0.860	0.341
종교	종교 없음	245	3.84±0.68	2.22±0.75	1.72±0.81
	불교	43	3.86±0.65	2.42±0.91	1.88±0.92
	개신교	64	3.71±0.73	2.19±0.85	1.80±0.80
	천주교	30	3.57±0.59	2.44±0.84	1.88±0.81
	기타(이슬람교, 원불교 등)	7	3.64±0.97	3.01±0.69	3.69±1.07
	F값		1.552(.187)	2.683(.031)*	2.664(.032)*

변인	구분	N	양육행동		
			온정수용	거부제재	허용방임
			M±S.D	M±S.D	M±S.D
어머니 학력	중졸이하	9	3.19±1.02	2.63±0.77	2.23±0.98
	고졸	160	3.72±0.73	2.30±0.77	1.80±0.80
	대졸이상	210	3.89±0.60	2.22±0.82	1.74±0.85
	기타	9	3.66±0.53	2.80±0.84	2.19±0.92
	F값		3.489**	1.680	1.738
월평균 소득	200만원미만	12	3.55±0.76	2.08±0.71	1.64±0.57
	200만원~300만원미만	27	3.59±0.73	2.37±0.79	2.10±0.89
	300만원~400만원미만	61	3.77±0.76	2.42±0.78	1.99±0.84
	400만원~500만원미만	79	3.72±0.70	2.12±0.80	1.59±0.68
	500만원~600만원미만	74	3.76±0.54	e 2.05±0.62	e 1.51±0.60
	600만원~700만원미만	49	3.83±0.66	2.30±0.85	1.82±0.91
	700만 원 이상	75	4.04±0.70	g 2.54±0.93	g 1.97±1.05
	F값		2.394*	3.366** e(g <sup>1</sup> )	4.112** e(g <sup>1</sup> )

\* p < .05, \*\* p < .01, M = 5.0 만점

<sup>1)</sup> 사후검정: Dunnett T3

## 2. 인구사회적 특성에 따른 다문화수용성 차이분석

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다문화수용성의 하위요소 각각에 대한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분석결과 전반적으로 성별과 가계의 월평균 소득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먼저, 다양성 하위요인에 관한 결과를 살펴보면 성별에서 여학생(M=2.96)이 남학생(M=2.87)에 비해 평균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관계성 하위요인에 대한 차이분석에서 월평균 소득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p < .01), 사후검정 결과 300만원~400만원미만 집단(M=3.59)이 500만원~600만원미만 집단(M=3.18)보다 보편성이 높게 나타났다. 보편성 하위요인에 대한 차이분석 결과는 여학생(M=3.37)이 남학생(M=3.16)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월평균 소득에서는 사후검정 결과 300만원~400만원미만 집단(M=3.49)이 400만원~500만원미만 집단(M=3.09)보다 보편성이 높게 나타났다.

〈표 4〉 인구사회적 특성에 따른 다문화수용성 차이분석(I)

변인	구분	N	다문화수용성		
			다양성	관계성	보편성
			M ± SD	M ± SD	M ± SD
성별	남학생	213	2.87±0.45	3.26±0.72	3.16±0.63
	여학생	178	2.96±0.42	3.38±0.68	3.37±0.55
	t값		-2.057*	-1.656	-3.884***
월평균 소득	200만원미만	12	3.01±0.47	3.65±0.78	3.56±0.53
	200만원~300만원미만	27	3.00±0.47	3.48±0.59	3.53±0.51
	300만원~400만원미만	61	3.01±0.49	c 3.59±0.74	c 3.49±0.6
	400만원~500만원미만	79	2.86±0.39	3.24±0.66	d 3.09±0.62
	500만원~600만원미만	74	2.84±0.42	e 3.18±0.68	3.17±0.62
	600만원~700만원미만	49	2.95±0.40	3.18±0.66	3.23±0.46
	700만 원 이상	75	2.94±0.41	3.32±0.70	3.25±0.66
	F값		1.491	3.256** c>e <sup>1)</sup>	4.345*** c>d <sup>2)</sup>

\* p < .05, \*\* p < .01, \*\*\* p < .001, M=5.0 만점

<sup>1)</sup>사후검정: Dunnett T,

<sup>2)</sup>사후검정: Scheffe test

다문화교육 관련 정보원과 다문화가정 자녀 등과 접촉빈도에 따른 다문화수용성에 대한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의 〈표 5〉와 같다. 다양성 하위요인에 대한 차이분석에서는 책, 신문 잡지 등의 인쇄매체와 멘토링 활동 변인에서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 재학 중에 인쇄매체와 접한 경험 변인에서는 사후검정 결과 4·6회라고 응답한 집단(M=2.98)이 7·9회 접했다고 응답한 집단(M=2.57)보다 다양성이 더 높게 나타났다. 멘토링 활동 변인에서도 사후검정 결과 “그렇다”라고 응답한 집단(M=3.1)이 다른 집단에 비해 다양성 수준이 더 높은 것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계성 하위요인에서는 ‘인터넷 매체’, ‘외국인과의 접촉빈도’, ‘외국인 친구가 있다’, ‘해외여행 경험이 있다’ 등 변인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사후검정에서 인터넷 매체 변인의 경우에는 많이 접했다고 한 집단일수록 관계성 수준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원봉사에서는 “그렇다”고 응답한 집단(M=3.61)의 경우에 가장 높은 점수로 나타났다. 외국인 친구가 있다는 변인과 해외여행 경험이 있다는 변인에서는 각각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집단에서 평균점수가 각각 M=3.68, M=3.49로 관계성 수준이 가장 높았다,

보편성 하위요인에서는 ‘인쇄매체’, ‘인터넷 매체’, ‘자원봉사’, ‘외국인 친구가 있다’, ‘해외여행 경험이 있다’ 모두에서 유의하였다. 사후검정에서 ‘인쇄매체’, ‘인터넷 매체’에서는 접촉빈도가 많을수록 관계성 점수가 높았으며, ‘자원봉사’에서는 “그렇다”고 응답한 집단(M=3.64)의 경우에 가장 높은 점수로 나타났다. ‘외국인 친구가 있다’, ‘해외여행 경험이 있다’에서는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집단에서 점수가 각각 M=3.66, M=3.47로 가장 높았다.

〈표 5〉 인구사회적 특성에 따른 다문화수용성 차이(II)

변인	구분	N	다문화수용성		
			다양성	관계성	보편성
			M ± SD	M ± SD	M ± SD
인쇄매체 (책, 신문, 잡지)	없다	146	2.93±0.41	3.25±0.73	3.23±0.55
	1회~3회	152	2.92±0.44	3.31±0.66	3.34±0.53
	4회~6회	59	c 2.98±0.41	3.45±0.55	3.24±0.53
	7회~9회	14	d 2.57±0.49	3.29±0.52	2.95±0.50
	10회 이상	15	2.75±0.35	3.44±0.87	3.47±0.81
	F값		3.163* c)d <sup>1)</sup>	1.048	2.566*
인터넷 매체(인터넷, SNS 등)	없다	86	2.89±0.43	3.20±0.76	3.21±0.47
	1회~3회	147	2.94±0.42	3.22±0.62	3.22±0.48
	4회~6회	72	2.89±0.49	3.44±0.65	3.33±0.53
	7회~9회	41	2.83±0.40	3.39±0.62	3.22±0.57
	10회 이상	40	3.00±0.41	3.55±0.79	3.53±0.87
	F값		1.085	3.312*	3.222*
자원봉사	전혀 그렇지 않다.	170	3.93±0.40	3.30±0.74	3.28±0.56
	그렇지 않다.	75	2.85±0.41	b 3.18±0.56	3.11±0.43
	보통이다.	95	2.92±0.48	3.32±0.67	3.23±0.56
	그렇다.	34	3.03±0.34	d 3.61±0.64	3.64±0.55
	매우 그렇다.	17	2.81±0.66	3.57±0.85	3.54±0.70
	F값		1.316	2.906* b(d <sup>2)</sup>	6.934*** d)a, b, c <sup>1)</sup>

변인	구분	N	다문화수용성		
			다양성	관계성	보편성
			M ± SD	M ± SD	M ± SD
멘토링 (다문화가정 자녀)	전혀 그렇지 않다.	199	2.94±0.40	3.30±0.73	3.27±0.59
	그렇지 않다.	81	2.91±0.48	3.33±0.67	3.24±0.53
	보통이다.	67	c 2.79±0.42	3.23±0.53	3.21±0.45
	그렇다.	30	d 3.1-±0.32	3.47±0.78	3.45±0.55
	매우 그렇다.	14	2.81±0.65	3.58±0.85	3.56±0.71
	F값		3.244* c<d <sup>1)</sup>	1.113	1.967
외국인 친구가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	148	2.94±0.39	3.34±0.70	3.27±0.58
	그렇지 않다.	75	2.92±0.46	3.25±0.73	3.21±0.54
	보통이다.	90	2.86±0.43	3.12±0.51	3.15±0.40
	그렇다.	53	2.96±0.45	3.55±0.71	3.43±0.59
	매우 그렇다.	25	2.93±0.55	3.68±0.88	3.66±0.70
	F값		0.641	5.390*** c<d, c<e <sup>2)</sup>	5.548*** c<d, c<e <sup>2)</sup>
해외여행 경험이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	53	2.93±0.40	3.36±0.77	3.30±0.56
	그렇지 않다.	35	2.85±0.32	b 3.11±0.55	3.05±0.43
	보통이다.	103	2.84±0.43	c 3.21±0.64	3.16±0.45
	그렇다.	98	2.95±0.45	3.32±0.64	3.27±0.47
	매우 그렇다.	102	2.99±0.45	e 3.49±0.77	3.47±0.71
	F값		1.938	3.032* b,c<e <sup>2)</sup>	5.992*** b,c<e <sup>2)</sup>

\* p < .05, \*\* p < .01, \*\*\* p < .001, M=5.0 만점

<sup>1)</sup>사후검정: Scheffe test, <sup>2)</sup>사후검정: Dunnett T.

### 3. 지각된 어머니 양육행동이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영향력에서 공감 능력의 매개효과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이 지각하는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그들의 공감능력을 매개로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3단계 매개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전에 분산팽창요인(VIF)과 분산팽창요인의 역수(1 / VIF)로 계산한

공차한계를 구하였다. 공차한계의 값은 모두 0.1이상이었으며, VIF 값은 10.0미만으로 나타났으며, 따라서 독립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 매개변인으로서 공감능력은 관점수용과 공감적 각성 등 2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하위요인에 대한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종속변인으로서 다문화 수용성은 8개 하위요인 각각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하였으며, 위계적 회귀분석과 매개효과 검증에서 모두 유의하게 나타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1) 관점수용의 매개효과

본 매개회귀분석에서 지각된 양육행동이 문화개방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관점수용의 매개효과를 알아본 결과는 <표 6>과 같다. 매개회귀분석 1단계에서 온정수용은 관점수용 변인에 정(+)<sup>1</sup>의 영향력이 있다( $p < .001$ ).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온정수용적이라고 지각할수록, 관점수용( $\beta = .235$ ) 능력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대한 설명력은 7.5%이며, 설명력에 대한 모형의 적합성은  $p < .001$  수준에서 유의하였다.

2단계에서 독립변수인 온정수용( $p < .001$ ) 양육행동은 문화개방성( $\beta = .262$ )에 정(+)<sup>1</sup>의 영향력이 있다.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온정수용적 일수록, 문화개방성 측면에서 대학생들의 인식은 향상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설명력은 7.4%이며, 설명력에 대한 모형의 적합성은  $p < .001$  수준에서 유의하였다.

매개회귀분석 마지막 단계인 3단계에서 매개변수인 관점수용은 문화개방성( $\beta = .278$ )에 유의한 정(+)<sup>1</sup>의 영향을 미쳤으며, 3단계 조건을 충족하였다. 독립변수 중 온정수용적 양육행동 변인에서만 1단계와 2단계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였으며, 2단계( $\beta = .262, p < .001$ )에 비해 3단계( $\beta = .196, p < .001$ )에서 그 영향력이 감소하였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p < .001$ ), 이에 대한 설명력은 14.3%이다. 따라서 대학생의 관점수용은 어머니의 온정수용 양육행동이 문화개방성에 미치는 영향을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매개효과의 검증을 위하여 Sobel 검정을 실시하였다. 지각된 온정수용 양육행동은 관점수용 능력을 통해 문화개방성에 이르는 경로의 매개(간접)효과는 .065로 나타났고, Sobel test의 결과 Z값은 3.853이며  $p < .001$  수준에서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결론적으로 지각된 어머니의 온정수용적 양육행동은 문화개방성에 직접적으로 정(+)<sup>1</sup>의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관점수용을 매개로하여 문화개방성을 긍정적으로 향상시키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거부제재와 허용방임 변인은 매개효과가 없었다.

〈표 6〉 양육행동과 문화개방성에서 관점수용의 매개효과

구분	Step 1		Step 2		Step 3	
	종속 : 관점수용		종속 : 문화개방성		종속 : 문화개방성	
	B(β)	t	B(β)	t	B(β)	t
(Constant)	13.592	14.262 ***	6.863	7.836 ***	3.398	3.268 **
<b>양육행동</b>						
온정수용	.100(.235)	4.543 ***	.102(.262)	5.056 ***	.077( .196)	3.845 ***
거부제재	.035(.098)	1.601	.012(.037)	.598	.003( .009)	.160
허용방임	-.043(-.122)	-1.940	.050(.157)	2.500 *	.061( .191)	3.143 **
<b>관점수용</b>					.255(.278)	5.688 ***
<i>R</i> <sup>2</sup>	.083		.081		.152	
Adjusted <i>R</i> <sup>2</sup>	.075		.074		.143	
F값	11.662 ***		11.451 ***		17.368 ***	

\* p < .05, \*\* p < .01, \*\*\* p < .001

다음의 〈표 7〉은 지각된 양육행동이 상호교류행동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관점수용의 매개효과를 알아본 결과이다. 매개회귀분석 1단계의 결과는 〈표 6〉과 같다.

2단계에서 독립변수인 온정수용은 상호교류행동의지( $\beta = .177$ )에 정(+)<sup>1</sup>의 영향력( $p < .001$ ) 이 있다.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온정수용적이라고 지각할수록, 상호교류행동의지 측면에서 대학생들의 인식은 향상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설명력은 5.3%이고, 설명력에 대한 모형의 적합성은  $p < .001$  수준에서 유의하였다.

매개회귀분석 마지막 단계인 3단계에서 매개변수인 관점수용은 상호교류행동의지( $\beta = .279$ )에 유의한 정(+)<sup>1</sup>의 영향력이 있으며( $p < .001$ ), 3단계 조건을 충족하였다. 독립변수 중 온정수용 변인에서만 1단계와 2단계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였으며, 2단계( $\beta = .177$ ,  $p < .01$ )에 비해 3단계( $\beta = .111$ ,  $p < .01$ )에서 그 영향력이 감소하였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p < .001$ ), 이에 대한 설명력은 12.3%이다. 따라서 대학생의 관점수용은 어머니와 온정수용 양육행동이 상호교류행동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매개효과의 검증을 위하여 Sobel 검정을 실시하였다. 지각된 온정수용 양육행동은 관점수용 능력을 통해 상호교류행동의지에 이르는 경로의 매개(간접)효과는 .065로 나타났고, Sobel test의 결과 Z값은 3.872이며  $p < .001$  수준에서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결론적으로 지각된 어머니와의 온정·수용적 양육행동은 상호교류행동의지에 직접적으로 정(+)<sup>1</sup>의 영향을 미치며, 관점수용 변인의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지각된 양육행동의 하위요인 중에서 거부제재와 허용방임 변인은 매개효과

가 없었다.

〈표 7〉 양육행동과 상호교류행동의지에서 관점수용의 매개효과

구분	Step 1		Step 2		Step 3	
	종속 : 관점수용		종속 : 상호교류행동의지		종속 : 상호교류행동의지	
	B( $\beta$ )	t	B( $\beta$ )	t	B( $\beta$ )	t
(Constant)	13.592	14.262 ***	6.228	5.154 ***	1.470	1.025
<b>양육행동</b>						
온정수용	.100(.235)	4.543 ***	.094(.177)	3.382 **	.059(.111)	2.155 **
거부제재	.035(.098)	1.601	.058(.127)	2.061 *	.045(.100)	1.677
허용방임	-.043(-.122)	-1.940	.036(.082)	1.281	.051(.116)	1.878
<b>관점수용</b>					.350(.279)	5.658 ***
$R^2$	.083		.061		.132	
Adjusted $R^2$	.075		.053		.123	
F값	11.662 ***		9.379 ***		14.789 ***	

\*  $p < .05$ , \*\*  $p < .01$ , \*\*\*  $p < .001$

다음의 〈표 8〉은 지각된 어머니 양육행동이 이중적 평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관점수용의 매개효과를 알아본 결과이다. 매개회귀분석 1단계의 결과는 〈표 6〉과 같다.

2단계에서 독립변수인 온정수용 변인은 이중적 평가( $\beta = -.152$ )에 음(-)의 영향( $p < .01$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온정수용적이라고 지각할수록, 이중적 평가 측면에서 대학생들의 인식은 감소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설명력은 5.9%, 설명력에 대한 모형의 적합성은  $p < .001$  수준에서 유의하였다.

매개회귀분석 마지막 단계인 3단계에서 매개변수인 관점수용은 이중적 평가( $\beta = .125$ )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쳤으며, 3단계 조건을 충족하였다. 독립변수 중 온정수용적 변인에서만 1단계와 2단계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였으며, 2단계( $\beta = -.152$ ,  $p < .01$ )에 비해 3단계( $\beta = -.182$ ,  $p < .01$ )에서 그 영향력이 감소하였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p < .001$ ). 이에 대한 설명력은 12.3%이며, 설명력에 대한 모형의 적합성은  $p < .001$  수준에서 유의하였다. 따라서 대학생의 관점수용은 어머니와 온정수용 양육행동이 이중적 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매개효과의 검증을 위하여 Sobel 검정을 실시하였다. 지각된 온정수용 양육행동은 관점수용 능력을 통해 이중적 평가에 이르는 경로의 매개(간접)효과는 .039로 나타났고, Sobel test의 결과 Z값은 2.233이며  $p < .05$  수준에서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결론적으로 지각된 어머니의 온정수용적 양육행동은 이중적 평가에 직접적으로 부(-)의

영향을 미치고, 관점수용 변인의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지각된 양육행동의 하위요인 중에서 거부제재와 허용방임 변인은 매개효과가 없었다.

〈표 8〉 양육행동과 이중적 평가에서 관점수용의 매개효과

구분	Step 1		Step 2		Step 3	
	종속 : 관점수용		종속 : 이중적 평가		종속 : 이중적 평가	
	B(β)	t	B(β)	t	B(β)	t
(Constant)	13.592	14.262 ***	17.699	14.644 ***	15.576	10.510 ***
<b>양육행동</b>						
온정수용	.100(.235)	4.543 ***	-.081(-.152)	-2.901 **	-.096(-.182)	-3.394 **
거부제재	.035(.098)	1.601	-.050(-.111)	-1.791	-.056(-.123)	-1.995 **
허용방임	-.043(-.122)	-1.940	-.047(-.109)	-1.703	-.041(-.094)	-1.467
<b>관점수용</b>					.156(.125)	2.445 **
$R^2$	.083		.054		.069	
Adjusted $R^2$	.075		.059		.123	
F값	11.662***		7.440***		7.146***	

\*  $p < .05$ , \*\*  $p < .01$ , \*\*\*  $p < .001$

## 2) 공감적 각성의 매개효과

본 매개회귀분석에서 지각된 양육행동이 문화개방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공감적 각성의 매개효과를 알아본 결과는 〈표 9〉와 같다. 매개회귀분석 1단계에서 독립변수 중 온정수용( $p < .05$ )은 공감적 각성 변인에 정(+)<sup>1</sup>의 영향을 미친다.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온정수용적이라고 지각할수록, 공감적 각성( $\beta = .114$ ) 수준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대한 설명력은 약 2%이며, 설명력에 대한 모형의 적합성은  $p < .05$  수준에서 유의하였다.

2단계에서 독립변수인 온정수용( $p < .001$ )은 문화개방성( $\beta = .262$ )에 정(+)<sup>1</sup>의 영향을 미친다.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온정수용적 일수록, 문화개방성 측면에서 대학생들의 인식은 향상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설명력은 7.4%, 설명력에 대한 모형의 적합성은  $p < .001$  수준에서 유의하였다.

매개회귀분석 마지막 단계인 3단계에서 매개변수인 공감적 각성은 문화개방성( $\beta = .241$ )에 유의한 정(+)<sup>1</sup>의 영향력이 있으며, 3단계 조건을 충족하였다. 독립변수 중 온정수용적 변인에서만 1단계와 2단계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였으며, 2단계( $\beta = .262$ ,  $p < .001$ )에 비해 3단계( $\beta = .234$ ,  $p < .001$ )에서 그 영향력이 감소하였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력( $p$

(.001)이 있었다. 이에 대한 설명력은 12.9%이며, 설명력에 대한 모형의 적합성은  $p < .001$  수준에서 유의하였다. 따라서 대학생의 공감적 각성은 어머니의 온정수용 양육행동이 문화개방성에 미치는 영향을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매개효과의 검증을 위하여 Sobel 검정을 실시하였다. 지각된 온정수용 양육행동은 공감적 각성을 통해 문화개방성에 이르는 경로의 매개(간접)효과는 .027로 나타났고, Sobel test의 결과 Z값은 2.363이며  $p < .05$  수준에서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결론적으로 지각된 어머니와 온정수용적 양육행동은 문화개방성에 직접적으로 정(+)  
의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공감적 각성의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지각된 양육행동의 하위요인 중에서 거부제재와 허용방임 변인은 매개효과가 없었다.

〈표 9〉 양육행동과 문화개방성에서 공감적 각성의 매개효과

구분	Step 1		Step 2		Step 3	
	종속 : 공감적 각성		종속 : 문화개방성		종속 : 문화개방성	
	B(β)	t	B(β)	t	B(β)	t
(Constant)	44.755	17.667 ***	6.863	.876 ***	3.014	2.643 **
<b>양육행동</b>						
온정수용	.125(.114)	2.139 *	.102(.262)	5.056 ***	.091(.234)	4.637 ***
거부제재	.083(.089)	1.410	.012(.037)	.598	.005(.015)	.255
허용방임	-.056(-.063)	-.964	.050(.157)	2.500 **	.055(.173)	2.821 **
<b>공감적 각성</b>					.086(.241)	5.060 ***
$R^2$	.023		.081		.138	
Adjusted $R^2$	.015		.074		.129	
F값	3.051*		11.451***		15.531***	

\*  $p < .05$ , \*\*  $p < .01$ , \*\*\*  $p < .001$

다음의 〈표 10〉은 지각된 양육행동이 상호교류행동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공감적 각성의 매개효과를 알아본 결과이다. 매개회귀분석 1단계의 결과는 〈표 9〉와 같다.

2단계에서 독립변수인 온정·수용 양육행동이 종속변수인 상호교류행동의지에 미치는 영향력은 〈표 7〉과 같다. 매개회귀분석 마지막 단계인 3단계에서 매개변수인 공감적 각성은 상호교류행동의지( $\beta = .178$ )에 유의한 정(+)  
의 영향력이 있으며, 설명력은 8.2%이고( $p < .001$ ), 3단계 조건을 충족하였다. 독립변수 중에서 온정수용적 변인에서만 1단계와 2단계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였으며, 2단계( $\beta = .177$ ,  $p < .01$ )에 비해 3단계( $\beta = .157$ ,  $p < .01$ )에서 그 영향력이 감소하였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p < .001$ ). 따라서 대학생의 공감적 각성은 온정수용적 양육행동이 상호교류행동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매개효과의 검증을 위하여 Sobel 검정을 실시하였다. 지각된 온정수용 변인이 공감적 각성을 통해 상호교류행동의지에 이르는 경로의 매개(간접)효과는 .020으로 나타났고, Sobel test의 결과 Z값은 2.168이며  $p < .05$  수준에서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결론적으로 지각된 어머니와의 온정수용적 양육행동은 상호교류행동의지에 직접적으로 정(+)<sup>의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sup> 공감적 각성은 상호교류행동의지에 대하여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지각된 양육행동의 하위요인 중에서 거부제재와 허용방임 변인은 매개효과가 없었다.

〈표 10〉 양육행동과 상호교류행동의지에서 공감적 각성의 매개효과

구분	Step 1		Step 2		Step 3	
	종속 : 공감적 각성		종속 : 상호교류행동의지		종속 : 상호교류행동의지	
	B(β)	t	B(β)	t	B(β)	t
(Constant)	44.755	17.667 ***	6.228	5.154 ***	2.362	1.478
<b>양육행동</b>						
온정수용	.125(.114)	2.139 *	.094(.177)	3.382 **	.083(.157)	3.024 **
거부제재	.083(.089)	1.410	.058(.127)	2.061 *	.051(.111)	1.829
허용방임	-.056(-.063)	-.964	.036(.082)	1.281	.041(.093)	1.476
<b>공감적 각성</b>					.086(.178)	3.627 ***
$R^2$	.023		.061		.092	
Adjusted $R^2$	.015		.053		.082	
F값	3.051 *		9.379 ***		9.770 ***	

\*  $p < .05$ , \*\*  $p < .01$ , \*\*\*  $p < .001$

다음의 〈표 11〉은 지각된 어머니 양육행동이 이중적 평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공감적 각성의 매개효과를 알아본 결과이다. 매개회귀분석 1단계의 결과는 〈표 9〉와 같고, 2단계에서 독립변수인 온정·수용 양육행동이 종속변수인 이중적 평가에 미치는 영향력은 〈표 8〉과 같다.

매개회귀분석 마지막 단계인 3단계에서 매개변수인 공감적 각성은 이중적 평가( $\beta = .200$ )에 유의한 정(+)<sup>의 영향이 있으며,</sup> 3단계 조건을 충족하였다. 독립변수 중 온정·수용적 양육행동 변인에서만 1단계와 2단계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였으며, 2단계( $\beta = -.152$ ,  $p < .01$ )에 비해 3단계( $\beta = -.175$ ,  $p < .01$ )에서 그 영향력이 감소하였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p < .001$ ). 이에 대한 설명력은 8.4%이며, 설명력에 대한 모형의 적합성은  $p < .001$  수준에서 유의하였다. 따라서 대학생의 공감적 각성은 어머니와 온정수용 양육행동이

이중적 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매개효과의 검증을 위하여 Sobel 검정을 실시하였다. 지각된 온정수용 양육행동이 관점수용 능력을 통해 이중적 평가에 이르는 경로의 매개(간접)효과는 .023으로 나타났고, Sobel test의 결과 Z값은 2.208이며  $p < .05$  수준에서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결론적으로 지각된 어머니와의 온정·수용적 양육행동은 이중적 평가에 직접적으로 부(-)의 영향을 미치고, 공감적 각성은 이중적 평가에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표 11〉 양육행동과 이중적 평가에서 공감적 각성의 매개효과

구분	Step 1		Step 2		Step 3	
	종속 : 공감적 각성		종속 : 이중적 평가		종속 : 이중적 평가	
	B(β)	t	B(β)	t	B(β)	t
(Constant)	44.755	17.667 ***	17.699	14.644 ***	13.361	8.399 ***
<b>양육행동</b>						
온정수용	.125(.114)	2.139 *	-.081(-.152)	-2.901 **	-.093(-.175)	-3.382 **
거부제재	.083(.089)	1.410	-.050(-.111)	-1.791	-.058(-.129)	-2.114 *
허용방임	-.056(-.063)	-.964	-.047(-.109)	-1.703	-.042(-.096)	-1.536
<b>공감적 각성</b>					.097(.200)	4.087 ***
$R^2$	.023		.054		.093	
Adjusted $R^2$	.015		.059		n.084	
F값	3.051 *		7.440 ***		9.981 ***	

\*  $p < .05$ , \*\*  $p < .01$ , \*\*\*  $p < .001$

##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이 지각하는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하여 공감능력의 매개효과를 파악해보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응답자의 다문화 사회와 관련된 정보원들과 접촉빈도를 살펴보면, 인쇄매체, 방송매체, 인터넷매체, 공공기관 등에서의 교육, 학교에서 교육 등 모든 경우에 2/3 이상이 없거나, 1회~3회 등으로 매우 낮았으며, 다문화가정 자녀 등을 위한 자원봉사, 멘토링 등에 참여한 경험도 매우 낮았다. 해외여행 경험은 다른 변인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비추어 볼 때, 대학생들을 위하여 더 많은 다문화사회

관련 정보들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함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특히, 고등 교육기관인 대학교 내에서의 체계적인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바람직한 다문화사회를 준비하는데 매우 중요한 과정이라고 하겠다.

둘째, 일반적 사항에 따른 지각된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대한 차이를 분석한 결과, 남학생의 경우에 온정수용적 양육행동에 대한 점수가 더 높았다. 종교가 있다고 하는 응답자의 경우에, 거부제재와 허용방임 변인의 경우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이슬람교 등 기타 종교의 경우에 점수가 가장 높았다. 다문화수용성에 대한 차이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다양성과 보편성 변인에 있어서 여학생의 경우에 점수가 더 높았다.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공동체적인 사고 또는 편견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월평균 소득에서는 300만원~400만원미만 집단에게 있어서 관계성과 보편성 점수가 유의하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500만원~600만원미만 집단보다 점수가 더 높았다. 또한 200만원 미만 집단의 관계성과 보편성 점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소득수준에 따른 다문화 인식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의 필요성이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다문화 관련 정보원과의 접촉빈도에 따른 다문화수용성 차이분석 결과에서 먼저, 다양성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면, 인쇄매체의 경우에 4회~6회로 응답한 집단의 점수가 가장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다문화 관련 책 등의 인쇄매체를 접함에 있어서 양적으로 많이 접하였다고 하여 다문화에 대하여 편견 없이 동등하게 인식하고 수용하게 되는 것은 아니며, 어떤 내용을 접하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결과이다. 멘토링에서도 매우 많은 경험이 있는 응답자보다는 '그렇다'고 하는 응답자의 경우에 다양성 점수가 더 높으며, 이러한 결과도 경험의 질적인 부분이 중요하다는 결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관계성에 대한 차이분석에서 살펴보면, '인터넷 매체와 접촉빈도', '자원봉사', '외국인 친구가 있다' 등의 변인에서도 '그렇다'고 응답한 집단에서 다문화사회로 나아가고자 하는 관계성에서 가장 높은 점수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는 다양성 분석결과에서와 같이 접촉 정보의 내용적인 면에서의 차이와 자원봉사의 내용면에서 차이에 의한 결과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해외여행경험이 있다'고 한 경우에는 많을수록 관계성의 점수가 높았다.

다문화사회로 나아가고자 함에 대한 인식과 행동의지를 의미하는 보편성에 대한 차이분석에서도 인쇄매체, 인터넷매체, 자원봉사 변인에서 관계성에서와 같이 '그렇다'고 응답한 집단에서 가장 높은 점수로 나타났다. 다른 한편으로 '외국인 친구가 있다', 해외여행 경험이 있다'에서는 경험이 많을수록 관계성 점수가 더 높았다.

이상의 차이분석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대학생들의 다문화수용성 향상을 도모함에 있어서 대중매체를 통한 정보제공은 매우 중요하며, 더 나아가 정보제공의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함과 아울러 내용적인 면에서 다문화수용성 향상을 위한 효율적인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 하는 결과로서 매우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셋째, 대학생이 지각하는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영향력 분석에서 공감능력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먼저, 관점수용의 매개효과 분석에서 어머니의 온정수용 양육행동 변인만 다문화수용성의 문화개방성과 상호교류행동의지에 대하여 정(+ )적인 영향이 있었으며, 거부제재와 허용방임 양육행동에 대한 관점수용의 매개효과는 없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온정수용적 양육행동은 대학생들이 이주민들에게 가지는 이중적 평가에 대하여서 부분매개효과가 있었으며, 그 결과는 이중적 평가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공감적 각성의 매개효과 분석에서도 관점수용의 매개효과 분석에서와 같은 결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온정수용 양육행동 변인만 다문화수용성의 문화개방성과 상호교류행동의지에 대하여 정(+ )적인 영향이 있었으며, 다른 한편으로 온정수용적 양육행동은 대학생들의 이주민들에 대한 이중적 평가, 즉 편견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감적 각성, 즉 타인이 처한 상황에 보다 부합하는 감정 상태로 상대의 입장에서 보여주는 정서적 공감은 부분매개효과가 있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김학령 외 2011; 이민영 외 2011)에서 부모의 온정적인 양육태도와 행동이 자녀들의 이타성과 타인을 배려하는 태도 등을 증진시키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와 같은 경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또한 이순자 외(2004) 연구와 한용재 외(2015)의 연구에서 자녀에 대하여 수용적이며, 온정적인 양육행동이 자녀의 공감능력에도 유의한 정적인 영향력이 있다는 결과와 같은 경향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어머니의 온정수용적 양육행동만 의미있는 결과로 나타났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하겠다.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자녀의 사회화에 가장 중요한 요인이며(Hart 외 1992), 공감능력은 친사회적 행동의 중요한 동기가 되고 있으며(고영희 2011), 이러한 사회적 친밀감이 전반적인 다문화수용성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다고 한 선행연구 결과와도 같은 경향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자녀들로 하여금 공감능력, 즉, 일상생활 속에서 다른 사람들의 심리적인 관점을 이해하려고 노력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노력이 필요하며, 이는 자녀들의 바람직한 사회적 관계 형성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를 통하여 가정에서 부모, 특히 어머니는 우리나라가 다문화사회로 나아감에 있어서 부모양육행동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하며, 그 중에서도 어머니의 애정표현, 수용, 존중, 신뢰, 합리성 자율성 및 독립성 등과 같은 온정수용적 양육행동은 자녀의 다문화수용성 향상을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 따라서 현재 수행되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에도 이러한 결과를 반영할 수 있는 개선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본 연구가 편의표집방법에 의하여 진행되었으며, 자녀의 지각된 양육행동을 통하여 분석한 연구결과라는 점을 고려할 때, 추후에는 연구결과의 일반화를 위한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 고아라. 2005. 수도권 초등학생의 인종편견에 관한 연구. 서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고영희. 2011. 공감훈련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친사회적 행동 및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서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문정. 2003. 아동이 지각한 부모양육행동과 아동의 행동문제간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미진. 2010. 아동의 다문화수용성 척도개발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김학령 · 김정화 · 정의중. 2011. 청소년의 친사회적 행동에 대한 또래집단의 영향력 검증: 또래영향모델과 개인특성모델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아동복지학 36, 261-288.
- 권재환 · 이선희. 2015. 청소년의 부모양육태도, 대인관계능력과 다문화수용성의 관계 모형 검증. 청소년문화포럼 44(7), 8-32.
- 남희은 · 이미란 · 배은석 · 김선희 · 백정원. 2014. 대학생의 개인주의-집단주의 가치 성향에 따른 다문화수용성에 관한 연구. 디아스포라연구 8(2), 227-255.
- 민무숙 · 안상수 · 김이선 · 김금미 · 류정아 · 조영기. 2010. 한국형 다문화수용성 진단 도구개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박선희. 1997. 부와 모의 수용거부 양육태도가 초등학교 아동의 사회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성희. 2004. 공감학: 어제와 오늘. 서울: 학지사.
- 박영애. 1995. 부모의 양육행동 및 형제관계와 아동의 자존감과 의 관계.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주희 · 정진경. 2008. 타문화에 대한 태도발달검사의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22(1), 1-21.
- 박혜숙 · 원미순. 2010. 대학생들의 다문화수용성과 관련변인 탐색, 교육심리연구 24(2), 303-325.
- 박혜원. 2002. 공감훈련이 여중생의 공감능력과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설동훈. 2005. 국제결혼 이주여성 실태조사 및 보건복지 지원정책 방안. 과천: 보건복지부.

- 설은정 · 정옥분. 2012. 부모의 양육행동이 아동의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인간발달연구 19(2), 91-114.
- 안상수 · 민무숙 · 김이선 · 이명진 · 김금미. 2012.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 연구. 한국여성 정책연구원.
- 양계민. 2009. 국내 소수집단에 대한 청소년들의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3(2), 59-79.
- 양문현. 1984. 도시주부의 결혼만족도에 따른 자녀 양육태도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오성배. 2007. 국제결혼 가정 자녀의 교육 기회 실태와 대안 모색. 인간연구학회지, 12, 1-15.
- 우영혜. 2007. 아동이 지각한 의사소통과 공감능력의 관계. 서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고은. 2010. 지각된 모의 양육행동과 자기개념 명확성의 관계: 애착 안정성과 거부민감성의 매개효과. 이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인진 · 송영호. 2011. 한국인의 국민정체성에 대한 인식과 다문화 수용성. 통일문제연구 23(1), 143-192.
- 이강모 · 하규수. 2015. 다문화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다문화교육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6(4), 2465-2477.
- 이민영 · 김광웅. 2011. 초기청소년이 지각한 부모통제와 친구 갈등해결. 청소년학연구 18(2), 193-218.
- 이순자 · 오숙현. 2004. 어머니의 양육태도 및 유아의 대인문제해결사고와 공감능력과의 관계. 특수아동교육연구 6(2), 333-353.
- 이원영. 1983. 어머니의 자녀교육관 및 양육태도와 유아발달과의 관련성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장임숙 · 이원일. 2011. 대학생의 다문화인식과 이주인권 정책에 대한 태도, 지방정부연구 15(4), 177-199.
- 전경숙 · 정기선 · 이지혜. 2007. 다문화정책 교육방안 연구. 경기도교육청.
- 정미경. 2008. 주한 외국 유학생 현황 및 다문화 인식에 대한 기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현안보고 OR 2008-5-22.
- 정미선 · 김동원. 2017.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가 공감능력에 미치는 영향-아동의 자아탄력성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재활심리연구 24(3), 441-456.
- 정석원 · 정진철. 2012. 청소년의 다문화교육경험과 사회적 친밀감이 다문화수용에 미치는 영향. 다문화교육연구 5(1), 51-68.

- 조한숙, 2010. 다문화가정 초등학교 아동의 자아정체감 연구-어머니 양육행동과 학교생활만족도와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지소라. 2009. 초등학교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공감능력의 관계. 한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교육학과 석사학위논문.
- 차재호 · 이운영. 1974. 아들과 딸의 남성·여성성에 영향을 주는 어머니의 양육태도차원. 한국심리학회지 2(1), 29-40.
- 최지영 · 김재철. 2015. 초등학생의 다문화수용성에 대한 심리 · 사회적 요인 탐색. 청소년학연구 22(2), 389-411.
- 통계청. 2018. 09.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통계월보.
- 한용재 · 강현욱. 2015. 스포츠참여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학교생활 적응 관계에서 공감능력의 매개효과 검증-가족 탁구참여 청소년 중심-. 한국사회체육학회지, 제62호, 41-51.
- 홍유진. 2014. 대학생의 다문화수용성에 관한 연구-문화개방성, 고정관념 및 차별, 상호교류 행동의지의 관계를 중심으로. 호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홍정미. 2009.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교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계체계 변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Baron, Reuben M. & David A. Kenny. 1986. "Moderator-Mediator Variables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6), 1173-82.
- Becker, W. C. 1964. Consequences of different kinds of parental discipline. In M. L. Hoffman & L. W. Hoffman (Eds), Review of child development research(Vol.1, pp. 169-208). New York: Russell Sage Foundation.
- Berry, J. W. 2005. Acculturation living successfully in two cultures.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29, 697-712.
- Bryant, B. 1982. An index of empathy for children and adolescents. Child Development, 53, 413-425.
- Chen, G. M. 1997. A review of the concept of intercultural sensitivity. Paper presented at the Biennial Convention of the Pacific and Asian Communication Association, Honolulu, HI, January. ERIC Document Reproduction Service No. ED 408634.
- Davis, M. H. A 1980. Multidimensional approach to individual differences in empathy. JSAS Catalog of Selected Documents in Psychology 10(3), 85-104.
- Eisenberg, N. & Strayer, J. 1987. Empathy and its development. New York

: Cambridge University Press.

- Eisenberg, N. & Fabes, R. A. 1998. Prosocial development.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Vol. 3. Social, emotional, and personality development (5th ed), 701-778. New York: Wiley.
- Gils, M. B. & Sherman, T. M. 1982. Measurement of multicultural attitudes of teacher trainees,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75, 205-209.
- Hart, C. H., Dewolf, M., Wozniak, P., Burts, D. C. 1992. Maternal and Paternal Disciplinary Styles: Relations with Preschoolers' Playground Behavioral Orientations and Peer Status. *Child Development* 63(4). 879-892.
- Hoffman, M. L. 1982. The measurement of empathy. In C. E. Izard(Ed.), *Measuring emotion in infants and children*, 279-296. Cambridge, MA; Cambridge University Press.
- Nesdale, D. 1999. Social identity and ethnic prejudice in children, In P. martin & W. Noble(Eds), *Psychology and Society*, 92-110.
- Roe, A., & Siegelman, M. 1963. A parent-child relations questionnaire. *Child Development* 34, 355-369.
- Rogers, C. R. 1975. Empathic: An unappreciated way of being. *The Counseling Psychologist* 5(2), 2-10.
- Schaefer, E. S. 1959. A circumplex model for maternal behavior. *Journal of Abnormal Social Psychology* 59, 226-235.
- Schaffer, D. R. & Kipp, K. 2007. *Developmental psychology*. Belmont, CA: Tomeson Wadsworth.
- Slater, M. A., & Power, T. G. 1987. Multidimensional assessment of parenting in single-parent families. In J. Vincent (Ed), *Advances in family, intervention, assesment, and theory*(Vol. 4, pp. 197-228). Greenwich, CT: JAI.

● 투고일: 2019.01.31. ● 심사일: 2019.02.01. ● 게재확정일: 2019.02.19.

## **A Study on the Multicultural Acceptance according to Mothers' Parenting Behavior Perceived by University Students: Focusing on Mediating Effects of Empathy**

You Dooryon (Daegu Catholic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mediating effects of empathy on the influence of mothers' perceived parenting behavior on multicultural acceptance. This survey was conducted on university students in Daegu-Kyungbuk area and 386 copies were used as final analysis data. Data were analyzed using SPSS Windows program and reliability, independent t-test, ANOVA, post-hoc., mediated regression analysis, and Sobel-test were applied to analyze mediating effects. The main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In order to improve the multicultural acceptance of students in college, it is very important to provide information through the mass media. Furthermore, it is suggested that there is a need to find effective programs to improve the multicultural acceptance. Second, In the analysis of mediating effect of viewpoint acceptance, there was partial mediation effect on cultural openness and mutual willingness of multicultural acceptance only for mother's compassionate-receptive parenting behavior. There was partial mediation effect on the dual evaluation. In the analysis of mediated effects of empathic arousal, the same results were obtained as in mediating effects of viewpoint acceptance.

**<Key words>** Multicultural acceptance, Mother's parenting behavior, Empathy, Mediating effect